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781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22일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지방, 이대론 망한다… 시·군·도 협력 나서야

수도권 '블랙홀' 갈수록 심각
관광·우주·탄성소재·반도체 등
광주·전남·경남·부산·울산
연대·협력으로 경쟁력 확보를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 속에서 지방 공멸을 막기 위한 광주·전남, 전남·경남이 연계한 초광역협력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경우 균형발전과 분권을 5대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오히려 임기 중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현 정부가 추진중인 핵심 경제 정책(규제완화)도 자칫 수도권 중심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형성해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탄성소재벨트, 초광역 국가 우주산업벨트 등을 추진해 지방 공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두 수도권에 맞설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을 막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업들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2600만명)는 전체 인구(5100만명)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로, 지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非)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수도권 쏠림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전국 102곳이었던 국내 소멸위험지역이 올 3월 113곳으로 2년 만에 11곳 늘어나는 등 수도권과 달리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은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가 인근 광역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남도, 부산·울산 등과 지역별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공동 협력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해안 글로벌해양관광벨트' 사업의 경우 천혜의 생태자원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남해안의 해양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 초광역경제권을 육성, 세계적인 문화·관광 중심지로 키우자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남중권(전남·경남), 남서권(광주·전남), 남동권(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 관광권으로 나눠 치유 콘텐츠, 체류형 관광, 다도해 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지방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경남과 연계한 초광역 국가 우주산업벨트도 추진중이다. 고흥·순천·광양·하동·사천·진주로 이어지는 남해안 남중권 사업으로, 전남은 발사체 클러스터를 키워나가고 경남은 위성과 소재부품산업에 주력하면서 국가 우주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공간적 특수성을 활용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본부 유치에 나서는 한편, 우주발사체 제조기업과 부품제조기업, 전후방 연관기업 집적화를 이루기 위한 특화산단 조성도 추진중이다.

전남·경남·부산을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탄성소재벨트도 수도권 중심적 경제권을 벗어나 자족기능을 갖춘 남해안권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상이다.

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의 핵심 부품·소재로 고내열·고내화학성 등을 갖춘 특수 탄성소재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고무 소재 생산 거점을 갖춘 전남, R&D 인프라를 구축한 부산, 수요 기업들이 모여있는 경남의 지역별 특·장점을 묶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지난 2021년 4월 3개 시·도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반도체 전략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도 무관하지 않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영호남 반도체 동맹' 결성 제안과 관련, "가뜩이나 수도권에 산업 인프라와 인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또다시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산업을 수도권 중심으로 육성한다면 지방소멸과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남·울산·경남이 추진중인 조선산업에 친환경·스마트·에너지 분야를 도입한 연계 협력 사업도 구상 수준의 밑그림을 넘어 구체화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영·호남 간 연계 협력 사업으로 수도권에 맞설 지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언적 의미의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즉시 추진토록 목소리를 내야 지방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풍암저수지 녹조라떼 … 물고기는 숨쉬고 싶다 19일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에 녹조가 발생해 물빛이 초록색을 띠는 가운데 잉어가 힘겹게 숨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전남 흐리고 비 … 낮 기온 30도 안팎 '후텁지근'

이번 주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그러나 광주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21일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 예정일인 21일 고흥은 오전부터 종일 비가 예상되면서 발사체 발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1일 시작된 비가 22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3일은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리겠으며, 24~25일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장맛비가 예상되는 22일과 24~25일은 남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기름값 고공행진 유류세 인하 30%→37% 확대

정부, 7월부터 시행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ℓ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ℓ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밖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다고 보면,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제도상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간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도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우크라 피난민 광주 고려인마을 정착 100일 ▶7면
KIA 챔스필드는 흥겨운 놀이터 ▶18면
건축물 열전 - 경주 세계엑스포대공원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